

구례 석주관 칠의사 국가유산 보호구역에 '굿당' 수년 방치

계곡 중간에 위치 폭우 등 사고 위험...칠의사 관리인이 운영 "호국영령들 모신 굿서 무속 행위 용납 못할 일"...주민들 원성

호국영령과 순국선열 등을 모신 석주관 칠의사(구례군 토지면 송정리) 국가유산 보호구역 내에 무속인들의 기도처(일명 굿당)가 수년째 설치 운영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23일 구례군 등에 따르면 석주관 주변 굿당은 칠의사 좌측 경계로부터 30여m 떨어진 산림 내 계곡에 설치되어 있으며, 취사 용품 등 주거를 위한 시설이 갖춰진 움막 형태의 구조물이다. 제사 등을 위한 시설과 조리용품 등이 정돈되어 있지 않은 채 미관상 좋지 않은 상태이다.

또 건물 등이 계곡 중간에 위치해 자칫 폭우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 위험도 도사리고 있어, 철거 등 행정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사적 106호인 칠의사는 국가유산으로 보호되는 유산으로 국가유산기본법에 의거 경내로부터 500m 이내 지역에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은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굿당이라 불리는 불법 시설을 사용하는 무속인이 칠의사 묘역과 사당에서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국가유산을 관리해야 할 군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내버려 두고 있다는 지

? 칠의사 1597년 정유재란 당시 10월부터 이듬해 봄까지 이어진 구례 석주관 전투에서 전사한 이정익·양응록·고정철·오중·한호성·암득인·왕의성 등 7인의 의병장을 말한다. 석주관 칠의사 묘역에는 당시 구례 현감으로 남원성 전투에서 순국한 이원춘 장군도 함께 안장해 8인이 모셔져 있다. 석주관(사적385호)은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 지역으로 호남을 방어하는 제1의 군사적 요충지이다. 현재 750여m의 성곽이 남아 있어 보존되고 있다.

적이 일고 있다. 칠의사 인근 주민들은 순국 선열을 모신 칠의사 인근에서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무속 행위를 하는데도 관계 당국은 방치만 하고 있는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주민 A씨는 "굿당이 설치 된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순절한 호국영령들을 모신 곳에 굿당을 설치하고 무속 행위를 하는 것은



국가유산으로 보호되는 구례 석주관 칠의사 인근 계곡에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움막 형태의 구조물 주위에 제사 등을 위한 시설과 조리용품 등이 방치되어 있다.

사회 통념상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10여 년 전 지리산 문수리 계곡에서도 무속인들이 돼지머리를 가져다 놓고 굿판을 벌려 주민들과 마찰을 일으켰는데, 당시 주민들의 반발로

모두 퇴거해 지금은 무속 행위가 근절된 것으로 안다"며 "하루빨리 합당한 조치가 이뤄져 모두 철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례군 관계자는 "지난해에 계고장을

보내고 철거를 종용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행정지도를 펼쳤으나 사정이 있어 여의치 않다"며 "해당 관리인 관계자들과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글·사진 구례=이진택 기자 lit@

순천 세계유산 보존·활용 위해 세계적 전문가들 모인다

세계유산포럼 25일 순천서 개최 미국·태국 등 전문가 강연·토론

순천의 세계유산 보존을 위한 세계적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진다.

순천세계유산축전의 학술행사인 '2024 세계유산포럼'이며, '선암사·순천갯벌의 세계유산 등재 이후 유산의 가치 보존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25일 순천 에코그라드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태국 등 세계적으로 세계 유산과 관광 분야의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포럼은 기조강연·학술발표·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기조강연은 세계적인 축제 전문가 미국 템플

대학교 아이라 로렌 교수와 태국 수코타이주 도시개발공사 사카셈 탄티아와롱 이사가 맡는다.

세계축제협회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아이라 로렌 교수가 '세계유산 등재 이후 유산의 적극적인 활용방안과 관광정책'에 대해 제언한다. 이어 태국 3대 축제인 '수코카이 로이 크라통' 축제 기획자로 활동 중인 사카셈 탄티아와롱 이사가 '지속 가능한 세계유산의 보존과 활용 사례'에 대해 강의한다.

주제발표에서는 순천갯벌과 선암사의 세계유산 등재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 세계유산등재 추진단 실무 담당자와 연구자들이 세계유산의 등재과정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보존과 활용방안 등을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사례로 수원화성 세계유산축전의 총감독을 역임한 권재현 수원대학교 교수의 주민참여형 유산 활용사업과 정책, 허균 전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으로부터 세계유산 등재 도시의 인식 변화를 듣는다.

특히 이번 포럼에는 순천과 신안, 경복 영주 등 세계유산 등재입무를 추진했던 담당자들도 참석해 세계유산 등재 이후 현장에서 느끼는 보존과 활용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학술포럼을 통해 보존과 규제중심의 정책에서 세계유산의 가치를 마음껏 향유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보존과 활용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보성군, 화재 등 대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보성군이 지난 21일 보성국민체육센터에서 다중 밀집 시설의 대형 화재 등 복합재난에 대비한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각종 대형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지원기관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진행됐다.

이번 훈련은 현장 훈련과 토론 훈련을 병행해 실시됐다. 특히 토론 훈련은 보성군 재난 안전 상황실에서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해 재난 현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실무반별 대응 상황을 철저히 점검했다.

훈련 중점사항은 ▲상황 발생에 따른 재난 상황 보고 및 전파 ▲초기 화재 진화 및 인명 대피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비상 기구 설치·운영 ▲관계기관 합동 재난 대응 ▲현장 훈련과 토론 훈련을 병행하는 통합 연계 훈련 추진 등이다.

한편 올해 하반기 안전한국훈련은 지난 2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실시하며, 산불·다중이용시설 화재·인파 밀집 사고 등 대형 재난에 대한 실천 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방침이다. /보성=김은중 기자 kyb@kwangju.co.kr

여수산단 불황 탈출 총력... "고부가·친환경 구조로 변신"

여수시 위기대응 계획 용역 착수 전남도와 전담팀(TF) 구성·가동

최근 석유화학업계가 세계적 경기침체, 탄소중립 이행, 석유화학제품 매출 감소 등의 악조건으로 침체 위기에 놓여있다.

이같은 상황은 여수석유화학산업단지(이하 여수산단)도 직면하고 있다. 이에 여수시는 석유화학산업을 고부가가치와 친환경 산업 구조로 탈바꿈시켜 긴 불황의 터널에서 탈출시키고자 총력을 쏟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7월 석유화학 분야 전문가와 관련 기업·전남도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여수산단 석유화학산업 위기대응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올해 말까지 추진되는 이번 용역을 통해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 수립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9월에는 전남도와 함께 지역 내 대표 석유화학기업 및 유관기관을 방문해 공단 유틸리티 및 인프라 구축 등의 현안을 듣고, 바로 '여수 석유화학산업 위기대응 전담팀(TF)'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규제개선 분과 및 인프라 조성·인력양성 분과로 나뉘어 분야별 현장 중심의 정책발굴과 규제개선·기업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오는 11월에는 기업 관계자와 산단 전문가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석유화학산업 위기대응 협의체'를 발족해 위기 대응 정책 자문과 대정부 건의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이와 함께 여수시는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석유화학산업의 탄소중립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여수국가산단을 '탄소중립형 친환경 화학산업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전략 수립과 협력기업 유치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석유화학산업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개발과 기반 시설 구축사업 추진 등 고부가·친환경 산업으로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현재의 당면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중앙병원 독거노인 21명 의료봉사



여수중앙병원이 최근 미평동 주민센터에서 독거노인 21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펼쳤다. 이번 의료봉사는 박기주 중앙병원장을 비롯한 의료진들이 참여한 가운데 고혈압·당뇨병 등의 기초검사와 수액 영양 주사를 투여하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고흥군 '드론쇼와 함께하는 청년 프리마켓'

26일 녹동 바다정원에서

드론쇼와 함께하는 '청년 프리마켓'이 녹동 바다정원에서 열린다.

고흥군은 창업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청년 프리마켓을 26일 녹동 바다정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년 프리마켓'은 지역에서 창업 또는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성장과 정착을 위해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9

월 7일과 10월 9일에 이어 세 번째로 운영된다. 참여와 홍보의 기회가 적었던 창업 청년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 프리마켓은 지난 10월 14일 공고를 통해 8개 업체를 모집했으며, 오는 26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액세서리, 디저트, 두들·마늘종 장아찌, 숯불 생선구이, 음료, 도자기, 간식 등 청년들이 직접 제작하고 만든 고품의 특산물을 중점적으로 판매한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광양 포스코DX 노사, 장학금 600만원 전달

광양의 포스코DX 노사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각각 300만원씩 총 600만원을 광양시 장학재단인 재단법인 백운장학회에 지난 21일 기탁했다.

광양시는 21일 시청 접견실에서 포스코DX 노사가 재단법인 백운장학회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각각 300만원, 총 600만원의 기부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광양시청 접견실에서 정인화 광양시장·포스코DX 권경환 광양자동차사업실장·포스코DX 이재열 노조조합위원장 등 양 기관 관

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이날 전달식에서 권 실장은 "상생과 화합을 위해 노사가 함께 사회공헌활동에 앞장 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조합원들의 뜻을 모아 학생들의 꿈을 이루는데 쓰여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기부자의 소중한 뜻을 받아 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